

노부모 부양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Family Caregiving Process for Older Parents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강 사 : 李 炯 實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Hyong Sil Lee*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논의 |
| II. 선행연구 고찰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in the caregiving process for caregivers with older parents. A model was presented to help identify some of the dynamics in the family caregiving process. Fifty-nine caregiv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adult children who were currently providing care to at least one older parent. Using LVPLS program, support for the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found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paths among the variabl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experience of life event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erceptions and positively with active coping.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perceptions and active coping.

Past relationships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ptions an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ctive coping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hereas perceptions were not a good predictor for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The results of the family caregiving process model demonstrated that past relationships and perceptions of caregiving were related to current caregiving experiences with older parents.

I. 서 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대됨에 따라 노인부양은 가족들이 점차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Brody, 1985).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부양을 위해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왔으나(Shanas, 1979; Stoller, 1985), 가족과 관계된 변수들은 대개 고려되지 않았고 부양자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즉, 노인 부양자들이 부양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신체적·심리적 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결과적으로, 노인부양이라는 부양자 가족내에서의 발달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관계의 질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가족부양 연구는 부양 상황의 단순한 기술에서 벗어나 가족관계의 역동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Brubaker, 199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요인들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검증하는데 있다. 가족부양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노부모 부양자 가족의 부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며 노부모에게 더 나은 부양을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나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및 대응 이론(Lazarus & Folkman, 1984)과 Double ABCX 모델(McCubbin & Patterson, 1982)이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설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먼저, Double ABCX 모델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양이라는 오직 한 사건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나 요구들의 누적된 영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부모 부양, 결혼생활, 부모역할, 그리고 직업역할에서 오는 일상적인 요구들은 부양자로 하여금 스트레스의 가중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는 부양자간에 나타나는 부양경험의 개인차이는 스트레스 및 대응 이론으로 살펴볼 수 있다. 어떤 부양자들은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따르는 부양요구에 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다른 부양자들은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비교적

좋은 심리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식과 대응같은 매개요인들이 부양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 중요한 문제는 부양자들이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가 아니라 부양자들이 부양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 요구에 대한 부양자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부양과정의 개념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부양요구의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부양상황에 대한 부양자의 인식을 중요시하였다. 즉, 부양자가 자신의 노부모 부양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고려하였다. 둘째, 노부모와의 과거관계가 현재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셋째, 결과 변수가 노부모와 부양자간 관계였다.

가족부양과정 모델에서 요인들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부양상황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 대응과 부모와의 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 대응은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생활사건은 부양인식과 적극적 대응에 부적 영향을 주며, 역할긴장은 부양인식에 또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 과거 부모와의 관계는 부양인식과 현재 부모와의 관계와 정적으로 관련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생활사건

노인부양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누적되며, 또한 노인부양의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부양자들에게는 부가적인 부담을 가져다 준다. 부양하는 노인의 건강이 아주 좋지 못할 경우 노인부양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노인부양에 대한 다른 생활사건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매증 노인의 부양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적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eed,

Stone, & Neale, 1990), Sillman등(1986)은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가적인 생활사건이 부양자의 정서적 건강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 과정으로서 부양자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가족부양은 노인부양외 다른 생활사건에 의해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2. 역할긴장

많은 노인 부양자들은 역할긴장을 경험하는데, 노부모 부양, 직업, 그리고 가족역할에서 오는 요구들이 특히 시간적인 면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수 있다(Brodv, 1985). 한편, 역할다중이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킨다는 이러한 가정과는 달리, 최근의 연구들은 역할다중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부양자들중 많은 수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동시에 맡고 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 경우 노인 부양자가 느끼는 역할긴장이나 부양 스트레스가 증가할수 있다. 취업은 부양자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 부양자의 부양책임은 크지만, 부담과 생활만족면에서 볼때 비취업 부양자와는 차이가 없었다(Pett등, 1988). 취업은 부양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외부적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충당하게 한다.

노인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부양자가 겪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George & Gwyther, 1986 ; Stoller & Pugliesi, 1989).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양할 경우, 부양자들은 개인적이나 가족적 또는 사회적 활동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한편, 노인과 떨어져 살면서 부양할 경우 두집을 왕래하면서 부양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Stoller & Pugliesi, 1989).

역할긴장은 부양역할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한다면 감소될 수도 있다. 배우자·형제·다른 친척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는 부양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Horowitz, 1985 ; Zarit, Reever

& Bach-Peterson, 1980).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간병인으로부터 받는 도움도 부양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 부양자에 미치는 역할긴장의 영향에 관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또한 역할긴장의 어느 한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은 가족부양과정을 이해하는데 제한점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긴장의 이들 요소들이 함께 어떻게 부양과정에 관련되는가를 보고자 했다.

3. 과거관계

노부모 부양은 가족이 공유한 과거 경험과 관련이 되며, 과거 경험에 대한 인식은 부양이 어떻게 제공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Horowitz, 1985). Gubrium(1988)은 치매증 노인 가족연구에서 노인 부양자들이 과거의 습관, 기대, 상호작용에 근거해서 노인을 부양하기 때문에 가족역사가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만약 거부·단절·갈등으로 지속된 과거가 있다면 자녀는 노부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노부모도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와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역할을 맡기도 한다.

노부모 부양에서 나타나는 도구적 또는 정서적 형태는 가족내 상호작용의 과거 유형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양역할에서 오는 요구들 때문이 아니라 과거관계의 결과로서 나타날수 있다(Brubaker, 1990). 실제로, 치매증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노인을 부양하기 전에 노인과의 정서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던 부양자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부양자들에 비해 더 높은 부담 점수를 보이는 것을 밝혔다(Pratt, Schmall & Wright, 1986 ; Williamson & Schulz, 199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현재의 노부모 부양경험이 노부모와의 과거관계와 연결됨을 알수 있다.

4. 부양인식

부양상황에 대한 인식과 부양결과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부양과정에 있어서 부양인식의 역할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 종단연구(Townsend 등, 1989)에서, 부양자의 우울정도는 부양상황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되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높은 부담수준과 낮은 생활만족을 보고한 부양자들은 자신의 부양 역할요구에 대한 죄의식과 분노감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다(Cohen & Eisendorfer, 1988).

부양과정에서 부양인식의 중요성은 부양요구의 객관적 지표와 부양결과간에 아주 약한 관계가 존재함을 밝히는 연구(Zarit 등, 198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객관적 지표보다는 부양하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양자의 주관적 평가가 부양자가 경험하는 우울을 예측하는데 더 나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5. 대 응

부양자가 어느 정도로 우울 및 부담같은 부정적 부양결과를 경험하는가에 있어서 그 개인차이가 존재함이 분명하다. 이러한 개인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대응기제의 역할에 가장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양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부양자의 높은 생활만족 및 건강과 관련되는 반면, 회피 대응의 사용은 좋지 않은 부양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적 분석, 정보 탐색, 문제해결과 같은 적극적 대응을 사용하는 치매증 노인의 부양자들은 비교적 좋은 신체적 건강을 보였으며(Haley 등, 1987), 또한 부양자가 경험하는 부담 수준도 적극적 대응의 사용에 의해 감소되었다(Pratt 등, 1985). 중년여성이 대상인 연구(Pett 등, 1988)에서는 높은 부담수준을 보인 부양자들이 회피 대응을 더 자주 사용하였으며, 회피 대응은 또한 심한 우울증과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모와의 관계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들은 정서적 지지나 관계의 질보다는 도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왔다(Noelker & Townsend, 1987). 부양하는 노인과의 관계는 부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노인과의

관계는 부양의 지속과 질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중요한 동기중의 하나이다(Horowitz & Shindelman, 1983).

노부모 부양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노부모와 부양자간 친밀을 감소시키기도 한다(Johnson, 1983). 노부모를 부양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양하는 노부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친밀이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부모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보답하거나 가족의 무를 수행하는 기회로 본다면 노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이 높아질 수 있다(Horowitz & Shindelman, 1983). 한편, 몇몇 연구들은(Cantor, 1983; Horowitz, 1985) 노인과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을 발견했다. 또한 부양자가 노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이라고 할 때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을 덜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Stoller & Pugliesi, 1989). 노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부양자가 부양으로부터 경험하는 부담이나 기타 어려움들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1988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행해진 노부모 부양 연구를 위해 수집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 59명으로, 지지 집단, 사회기관, 교회를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노부모는 대개 노인성 치매나 다른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대체로 기혼(63%)이었고, 90%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50.1세이고,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19%, 40대가 24%, 50대가 37%, 그리고 60대가 20%였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5%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조사대상자의 30%는 자신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부양자중

61%가 취업을 하고 있었으며, 현재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 정도(49%)였다. 조사대상자의 75%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12%가 아버지에게 부양을 제공하고 있었다. 부양하고 있는 노부모의 평균연령은 78세였고, 70대와 80대가 각각 32%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PERI Life Event Scale (Dohrenwend, Askenasy, Krasnoff & Dohrenwend, 1978)을 이용하였다.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조사이전 1년간 경험했던 긍정적·부정적 사건의 수 및 사건의 중요도를 조사한다. 직업·가족·결혼생활·자녀·주거·경제·건강·사회활동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수만을 사용하였다.

역할긴장은 조사대상자의 취업 여부, 자녀와의 동거 여부, 노부모와의 동거 여부, 그리고 다른 친척과의 노부모 부양 역할공유 여부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 또는 0으로 이분화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긴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과거관계는 Family of Origin Scale(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방위가족에서의 가족환경을 측정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형의 척도로 최저 40점에서 최고 200점의 범위를 갖는다. 자율성과 친밀이 중심 차원으로, 자율성에는 표현의 명확성, 개인적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개방, 분리와 상실의 수용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친밀은 감정표현, 애정적 분위기, 갈등해결, 감정이입, 신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로 살펴본 신뢰도는 그 계수가 자율성은 .94, 친밀은 .95로 나타났다.

부양인식은 Martin과 Lee(1992)에서 사용되었던 총 10문항 척도로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형의 척도로 감정성, 평가, 예상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79였다.

대응은 Health & Daily Living Manual(Moos, Cronkite, Billings & Finney, 1985)로부터 추출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32문항이며, '사용하지 않는다'의 0점부터 '매우 자주 사용한다'의 3점까지의 범위를 갖는 4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13문항의 적극적 행동 대응(예: 문제에 대해 배우자나 다른 친척과 얘기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청한다), 11문항의 적극적 인지 대응(예: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안을 고려한다), 8문항의 회피 대응(예: 화가 날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한다.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를 부인한다)으로 분류되었고, Cronbach's Alpha로 본 신뢰도 계수는 각각 .77, .73, .60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 방문과 전화 횟수, 그리고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를 묻는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노부모를 얼마나 자주 방문 그리고 전화를 하는가는 각각 9점 척도상에서 측정되었고,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는 1점(전혀 친밀하지 않다)에서 4점(매우 친밀)까지의 점수를 주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LVPLS(Latent Variable Path Analysis with Partial Least Squares) 프로그램(Lohmoller, 1989)을 사용하였다. LVPLS 프로그램은 구조 방정식 모델에서 지표와 잠재변인간 관계, 그리고 잠재변인들간 관계를 검증한다.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검증하는 첫 단계는 지표들(Indicators)이 각 잠재변인들(Latent variables)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하여 요인부하치가 0.55 이하인 지표들을 제외한 후의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지표들은 역할긴장에서 취업 여부와 부양역할 공유여부, 대응에서 회피대응,

표 1. 변수들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생활사건	1.00															
취업	-.04	1.00														
자녀동거	.07	.07	1.00													
부모동거	.11	.13	-.28*	1.00												
부양공유	.13	.06	.22*	.06	1.00											
자율성	-.08	-.05	.06	.06	.02	1.00										
친밀	-.18	-.07	.07	.08	.17	.88*	1.00									
평가	-.35*	.01	-.09	.05	.15	-.00	.11	1.00								
예상	-.13	-.21	.00	-.12	-.00	.21	.08	.03	1.00							
감정성	-.09	-.06	-.02	.18	-.02	.23*	.30*	.50	.20	1.00						
인지대응	.04	-.25*	.01	-.09	.12	.29*	.12	.15	.29*	.13	1.00					
행동대응	.21	-.02	.03	-.03	.23*	.28*	.21	-.08	.08	-.12	.65*	1.00				
회피대응	.13	.00	.15	.33*	-.02	-.09	-.16	-.13	-.20	.03	.02	-.10	1.00			
방문	.13	-.04	-.14	.73*	.00	.16	.17	-.01	-.10	.18	-.05	.00	.24*	1.00		
전화	.07	.18	.05	.67*	.10	.10	.12	-.02	.05	.18	-.10	-.00	.33*	.62*	1.00	
친밀도	-.02	-.01	-.13	.02	.06	.17	.10	.35*	.15	.52*	.33*	.07	-.17	.14	.10	1.00

*p<.05

표 2. 측정모델 분석결과*

지표	1	2	3	4	5	6
생활사건						
생활사건	1.0					
역할긴장						
자녀동거		.59				
부모동거		-.59				
과거관계						
자율성			.98			
친밀			.98			
부양인식						
평가				.83		
예상				.59		
감정성				.84		
대응						
적극적 인지					.94	
적극적 행동					.94	
부모와의 관계						
방문						.90
전화						.90

*제시된 수치는 요인부하치를 나타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도로 나타났다. 이 지표들은 각각의 해당 잠재변인을 나타내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알수 있다.

다음 단계의 분석은 가족부양과정 모델에서 잠재변인들간 관계를 검증하는 것으로, 경로 계수가 0.10 이상인 관계만을 포함시킨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보면,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은 부양인식과 부적적으로 관련되었다. 노부모 부양에 덧붙여, 부정적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 부양자들은 노부모 부양상황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부가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적 영향을 제시하는 Double ABCX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부정적 생활사건의 경험은 긍정적인 대응기제로 간주되는(Haley등, 1987; Pratt등, 1985) 적극적 대응의 사용 감소와 관련될 것이라 가정하였으나, 부정적 생활사건은 적극적 대응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노부모 부양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다른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양상황의 어려움을 다루기 위해 대응기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과거관계는 부양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과거 방위가족에서의 관계가 좋을수록

현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방위가족에서의 과거관계와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관계가 좋을수록 현재 노부모와의 관계도 밀접한 것으로 볼수도 있겠으나, 또한 부양자가 현재의 노부모와의 관계나 노부모 부양경험에 비추어서 과거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하는 경향도 배제할수 없다고 하겠다. 한편, 부양인식은 방문과 전화 횟수로 본 부모와의 관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적극적 대응 사용의 증가와 관계가 있었다. 자녀가 노부모 부양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부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가족부양과정 모델에서 설정한 방향과는 달리, 적극적 대응은 부모와의 관계에 약하기는 하나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양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많이 사용하는 자녀일수록 그들의 부모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부모와의 관계 중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부모와의 접촉 변수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밖에, 가족부양과정 모델의 검증으로 볼수 없었던 변수들간 관계를 표 1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회피 대응 사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33$). 즉, 부양자가 노부모와 함께 동거할수록 부양상황의 어려움에 대해 회피 대응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회피 대응은 방문($r=.24$)과 전화 횟수($r=.33$)와 정적으로 상관되었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회피 대응과 부모와의 친밀도는 서로 부적 상관관계($r=-.17$)를 보였다. 부양자가 회피 대응을 사용할수록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회피 대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질적 측면과는 부적으로, 양적 측면과는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2에서 적극적 인지 대응과 친밀도간의 상관관계가 .33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회피 대응보다는 적극적 대응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회피 대응은 부모와의 접촉빈도와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과거관계중 자율성 차원은 적극적 인지 대응과($r=.29$), 그리고 적극적 행동 대응과($r=.28$) 각각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양자는 방위가족에서의 과거관계가 좋을수록 노부모 부양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자주 사용하였다. 부양인식과 부모와의 친밀도간에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5, r=.52$). 노부모 부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요인들간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가족부양과정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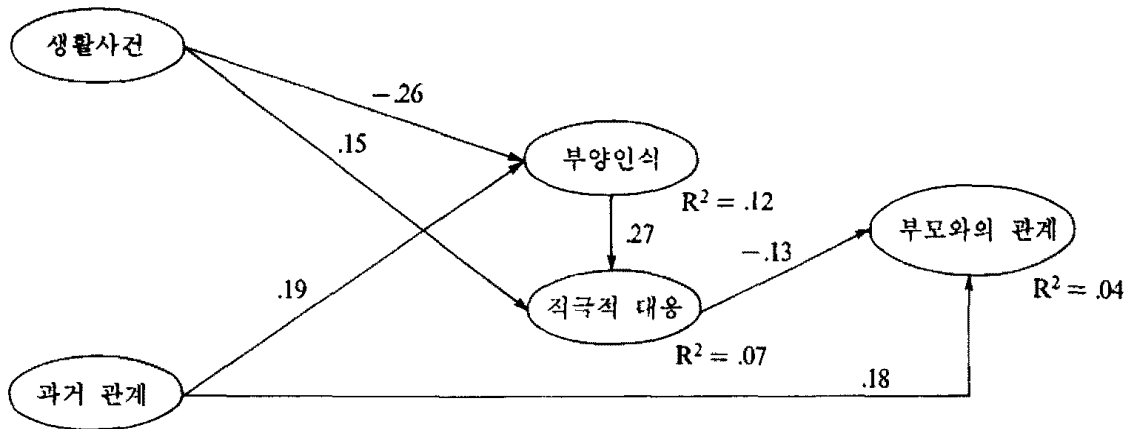


그림 1. 가족부양과정 모델.

있는 성인자녀가 어떻게 노부모 부양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노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단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수준의 분석으로 부양경험을 확장시키려고 하였으며 노부모 부양과정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공헌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와 그 가족들을 도와주는 중재나 지지 서비스를 발달시키는데 대한 기초로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를 부양하는 성인자녀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노부모 부양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부양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자주 사용하였다. 노부모 부양 이외의 다른 생활사건의 경험이 부양자의 노부모 부양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과거관계가 좋을수록 현재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노부모와의 접촉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위가족관계에서 자율성이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자녀 부양자가 현재 경험하는 노부모 부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노부모와의 이전 경험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세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부양자들은 부양상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은 노부모와의 높은 친밀도와 관련되었다. 부양인식은 부모와의 관계중 그 양적인 측면과는 별로 관련이 없었으나, 그 질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적극적 대응의 사용은 노부모와의 접촉 빈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양자가 부양상황에 대해 적극적 인지대응을 사용할수록 부모에 대한 친밀도가 높았다. 반면에, 회피 대응은 부모와의 접촉 빈도와는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나 부모에 대한 친밀도와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때, 본 연구의 가족부양과정 모델에서

설정된 것처럼 적극적 대응의 사용이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부모와의 관계가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부모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부양상황에 대해 회피 대응은 많이 사용하지만 적극적 대응은 적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양자가 노부모에게 느끼는 친밀도가 높을수록 회피 대응보다 적극적 인지대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와 부양상황에 대한 대응 사용간 관련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양자의 노부모 부양 행동은 노부모와의 이전 경험과 관련이 되며, 또한 노부모 부양과정을 연구할때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양자의 인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밝힌다. 그리고 노부모 부양인식에 영향을 주는 방위가족에서의 과거관계는 현 부양상황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따라서, 과거관계와 부양인식은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중재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몇 제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가족부양과정 모델에서 설정된 변수들이 부모와의 관계 변량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측정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중 그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가 낮은 요인부하치로 인하여 제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양적 측면인 전화나 방문횟수도 노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정교화된 부모와의 관계 척도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또다른 제한점은 노부모 부양 기간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양 기간은 노부모 부양경험의 다양성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부양에 대한 더 부정적인 경험을 결과하기도 한다. 반면, 부양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양상황에 적응해서 부양경험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세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변수들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은 인성이나 사회적 지지같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것이 노부모 부양과정의 역동성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밖에, 본 연구는 미국의 노부모 부양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한국가족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부양과정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Brody, E.(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2) Brubaker, T.H.(1990).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stress associated with caregiving in later-life families. In M.A.P. Stephens, J.H. Crowther, S.E. Hobfoll & D.L. Tennenbaum(eds.), *Stress and coping in later-life families*(pp29-47). New York :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3) Cantor, M.H.(1983). Strain among caregivers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23, 597-604.
- 4) Cohen, D. & Eisdorfer, C.(1988). Depression in family members caring for a relative with Alzheimer's diseas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6, 885-889.
- 5) Dohrenwend, B.S., Askenasy, A.R., Krasnoff, L. & Dohrenwend, B.P.(1978). Exemplification of a method for scaling life events : The PERI Life Event Sca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05-229.
- 6) George, L.K. & Gwyther, L.P.(1986). Caregiver well-being :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253-259.
- 7) Gubrium, J.F.(1988). Family responsibility and caregiving i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Alzheimer's disease exper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7-207.
- 8) Haley, W.E., Levine, E.G., Brown, S.L., Berry, J.W. & Hughes, G.H.(1987). Psychological, social, and health consequences of caring for a relative with senile dementia.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5, 405-411.
- 9) Horowitz, A.(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In C. Eisdorfer, M.P. Lawton & G.L. Maddox(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 194-246.
- 10) Horowitz, A. & Shindelman, L.(1983). Reciprocity and affection : Past influences on current caregiv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5, 5-20.
- 11) Hovestadt, A.J., Anderson, W.T., Piercy, F.P., Cochran, S.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287-297.
- 12) Johnson, C.(1983). Dyadic family relations and social supports. *The Gerontologist* 23, 377-383.
- 13) Lazarus, R.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14) Lohmoller, J.B. (1989). *Latent variable path modeling with partial least squares*. Heidelberg : Physica - Verlag.
- 15) McCubbin, H.I. & Patterson, J.M.(1982). Family adaptation to crisis. In H.I. McCubbin, A. Cauble & J.M. Patterson(eds.),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pp26-47). Springfield, IL : Charles C. Thomas.
- 16) Martin, P. & Lee, H.S.(1992). Indicators of active and passive coping in myocardial infarction victims. *Journal of Gerontology* 47, 238-241.
- 17) Moos, R.H., Cronkite, R.C., Billings, A.G. & Finney, J.W.(1985). *Health and Daily Living Manual*. Social Ecology Laboratory,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s.
- 18) Noelker, L.S. & Townsend, A.L.(1987). Perceived caregiving effectiveness : The impact of parental impairment, community resources, and caregiver characteristics. In T.H. Brubaker(ed.), *Aging, health, and family* (pp80-99). Newbury Park, CA : Sage.
- 19) Pett, M.A., Caserta, M.S., Hutton, A.P. & Lund, D.A.(1988). Intergenerational conflict : Middle-aged women caring for demented older relativ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8, 405-411.
- 20) Pratt, C., Schmall, V., Wright, S. & Cleland, M. (1985). Burden and coping strategies of caregiv-

- vers to Alzheimer's patients. *Family Relations* 34, 27-33.
- 21) Pratt, C., Schmall, V. & Wright, S.(1986). Family caregivers and dementia. *Social Casework* 67, 119-124.
- 22) Reed, B.R., Stone, A.A. & Neale, J.M.(1990). Effects of caring for a demented relative on elders' life events and appraisals. *The Gerontologist* 30, 200-205.
- 23) Shanas, E.(1979). The family as a social support system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19, 969-974.
- 24) Sillman, R.A., Fletcher, R.H., Earp, J.A. & Wagner, E.H.(1986). The families of elderly stroke patients : Effects of home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4, 643-648.
- 25) Stoller, E.P.(1985). Exchange patterns in the informal networks of the elderly : The impact on mor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51-858.
- 26) Stoller, E.P. & Pugliesi, K.L.(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44, S231-S238.
- 27) Townsend, A., Noelker, L., Deimling, G. & Bass, D.(1989). Longitudinal impact of interhousehold caregiving on adult children's mental health. *Psychology and Aging* 4, 393-401.
- 28) Williamson, G.M. & Schulz, R.(1990). Relationship orientation, quality of prior relationship, and distress among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Psychology and Aging* 5, 502-509.
- 29) Zarit, S.H., Reeve, K. & Bach-Peterson, J.(1980). Relatives of the impaired elderly : Correlates of feelings of burden. *The Gerontologist* 20, 649-655.